

# 엔도 슈사쿠(遠藤周作)의 역사소설에 대한 고찰

육근화\*

(e-mail: yookgh@dju.kr)

---

## 목 차

---

1. 들어가기
  2. 엔도의 역사소설의 테마
  3. 엔도문학에서의 역사소설의 특징
  4. 엔도의 역사소설에 대한 제언
  5. 마무리
- 

### 1. 들어가기

일본의 기독교문학을 대표하는 엔도 슈사쿠(1923.3~1996.9. 이하 엔도로 표기함)는 전 생애에 걸쳐 ‘일본에서의 기독교’와 ‘일본인에 있어서의 신의 존재’라는 주제 하에 일본인 정신풍토에 맞는 가톨릭의 유일신을 탐구해 온 작가이다.

지금까지 엔도문학에 대한 연구는 『침묵』(沈黙)을 비롯하여, 『백인』(白い人), 『황색인』(黄色い人), 『바다와 독약』(海と毒薬), 『사해의 주변』(死海のほとり), 『예수의 생애』(イエスの生涯), 『총과 십자가』(銃と十字架), 『무사』(侍), 『스캔달』(スキャンダル), 『깊은강』(深い河) 등 주로 순수문학에 속하는 작품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엔도문학에는 위와 같은 순수문학 이외에도 『바보』(おバカさん), 『헤치만군』(へちまくん), 『지금 백수』(ただいま浪人), 『뒤바뀐 인간』(あべこべ人間), 『낙천대장』(楽天大将), 『쾌남아·괴남아』(快男児・怪男児), 『유머소

---

\* 대전대학교 일어일문학과 교수, 일본근현대문학전공

설집』(ユーモア小説集), 『미스터리소설집』(ミステリー小説集), 『괴기소설집』(怪奇小説集) 등 대중소설도 상당히 많이 있으며, 이 외에도 일본의 전국시대를 배경으로 쓴 역사소설 『왕국으로의 길-야마다 나가마사』(王国への道-山田長政), 『여자의 일생』(女の一生)(1부·2부), 『숙적』(宿敵)(상·하), 『반역』(反逆)(상·하), 『결전의 때』(決戦の時)(상·하), 『남자의 일생』(男の一生)(상·하), 『왕의 만가』(王の挽歌)(상·하), 『여자』(女) 등이 있다.<sup>1)</sup>

엔도는 작품 『여자』에서 다음과 같이 역사소설에 대한 애착을 밝히고 있다.

역사를 좋아하는 나는 소설을 쓰기 위해서 취재하는 것이 아닌, 역사적 인물의 생애에 호기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 토지를 돌아다녔다. <중략>

그들이 본 같은 풍경을 나도 또한 보고 있다는 쾌감은, 나와 같이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에게서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다. (중략)

생각해 보면 역사소설을 쓸 수 있는 나는 행복한 인간이다. 각각의, 실재했던 인간의 생애를 실제로 걷고, 방문하여 그녀들의 인생을 떠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소설가로서, 이만한 참다운 묘미는 없다. <sup>2)</sup>

그러나 이와 같이 엔도가 역사소설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이고 그에 대한 저술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엔도문학에 대한 연구는 어느 나라에서나 거의 대부분 가톨릭의 순수문학 쪽으로 치우쳐 있다.

엔도의 역사소설과 관련된 주된 논문으로는, 사이토 가즈아키(齋藤和明)(1997) 「『숙적』 『반역』 그리고 그 후-전생의 모티브와 악의 문제」(『宿敵』 『反逆』そしてその後-転生のモチーフと悪の問題), 쓰치가 나나요(銚賀七代)(2000) 「『여자의 일생』론」(『女の一生』論), 다카하시 치하야(高橋千劍破)(2004)의 「엔도 슈사쿠에 있어서 마음의 고향과 역사소설」(遠藤周作における心の故郷と歴史小説), 가토 슈사이(加藤宗哉)(2006) 「마지막 장편까지-시대소설과 『깊은 강』」(最後の長編まで-時代小説と『深い河』) 등이 있으나 전체 역사소설에 대한 비교·분석은 아직 논해지지 않았다.<sup>3)</sup>

1) 본 논문 형식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갖고 작성되었음.

- 일본어에 관련된 한자는 맨 처음 한글과 한자를 병행하고, 이후 한글만을 표기함.
- 등장인물들은 같은 성이 많아 처음에만 성과 이름을 모두 명기하고, 후에는 이름으로 통일함. 우리말 논문이긴 하나 일본인의 성과 이름을 이해하기 쉽게 띄워서 명기함.
- 일본 출판사명은 일본한자 그대로 사용함.
- 번역은 모두 필자에 의한 것임.

2) 작품 『여자』의 텍스트로는 講談社 1995년 5월 20일 간행을 사용함. pp.533-535

3) 사이토 가즈아키의 논문은 山形和美編(1997) 『遠藤周作-その文学世界』星雲社 pp.233-256에, 쓰치가 나나요의 논문은 笠井秋生·玉置邦雄(2000) 『作品論 遠藤周作』双文出版社 pp.241-253에, 다카하시 치하야의 논문은 佐藤泰正(2004) 『遠藤周作を読む』笠間書院 pp.85-100에, 가토 슈사이의 논문은 加藤宗哉(2006) 『遠藤周作』慶応義塾大学出版社 pp.211-240에 실려 있음.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연구분야에서는 거의 소외된 엔도문학의 역사소설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각 작품의 주된 테마와 특성, 엔도문학에 있어서의 역사소설에 대한 의미 등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는 엔도의 역사소설에 대한 연구라는 새로운 시도로서 작가의 총체적인 작품테마와 문학사적 위치를 이해하는데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 2. 엔도의 역사소설의 테마

엔도의 역사소설에 대해서는 엔도작품에 관심을 갖고 있는 독자들은 물론 연구자들조차도 작가가 어떤 역사소설을 저술하였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엔도의 주요 역사소설에 관한 개괄적인 설명과 특징들을 돌출해 봄으로써 엔도에 대한 연구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

### 2.1 『왕국으로의 길-야마다 나가마사』(王国への道-山田長政)<sup>4)</sup>

작품의 주인공 야마다 나가마사(1590년~1630년)는, 에도시대 전기에 삼(현재의 태국)의 일본인 마을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에서 활약한 인물이다.<sup>5)</sup>

그는 평생 지상의 왕국을 꿈꾸던 아우타야 궁정을 수비하는 용병대장이었으며 후에 리고르의 왕으로 추대되나 결국에는 독살된다. 이와 대조되는 인물로 천상의 왕국을 지향하던 베드로 기베(ペドロ岐部)를 들 수 있다.<sup>6)</sup> 그는 일본의 기독교 탄압으로 추방되어 천신만고 끝에 로마로 건너가 신부 자격을 얻고 잔혹한 박해가 시행되고 있는 일본으로 다시 입국하여 순교한다.

두 등장인물은 1614년, 도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의 기리스탄 추방령에 의해 나가사키(長崎)에서 마카오로 향하는 선상에서 만나게 된다. 나가마사는 숨막히는 일본의 좁은 땅을 떠나 넓은 외국에서 당나라 사람이나 남만인<sup>7)</sup> 등과 새로운 사업을 일으키겠다는 야망을 품고 밀항하는 것이며, 베드로 기베는 기독교도로서 추방당하는 입장이었다.

다음의 대화에서는 두 등장인물의 가치관이 극명하게 나타나 있다.

4) 초판 「平凡社」 1981.4.14

5) 야마다 나가마사는 후에 개명한 이름으로 당시는 다케이 도조(竹井藤藏)였으며, 통칭으로는 야마다 니자에몬나가마사(山田仁左衛門長政)라 불렸음.

6) 베드로 기베에 대해서는 엔도 슈사쿠의 작품 『총과 십자가』(銃と十字架)와 필자의 논문 「『총과 십자가』론」 일본학보 제49집을 참조요망.

7) 일본의 무로마치(室町)시대 말기에서 에도(江戸)시대에 걸쳐 일본에 온 서양인의 총칭. 특히 포르투갈인, 스페인인을 일컫음.

큰돈을 벌고 싶어. 30년 전의 일본은 이곳저곳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아서 천민으로 태어나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으나 간바쿠님의 정치 이후, 무사는 무사, 농민은 농민으로 신분조직이 확고히 정해져, 나와 같은 자는 출세의 끈나풀도 없어. 그렇지만 마카오나 루손에 가면, 당나라 사람이거나 남만인을 상대로 여러 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가 있고 잘 하면 큰 배 한 척이나 두 척도 가질 수 있다고 들었어. 어쨌든, 작은 일본에서 숨 막히게 사는 것은 나의 천성과는 맞지 않아.

“그렇게 부를 갖고 싶은가”

“마음이 작은 사람아”

“마음이 작아? 이 내가”

“그렇고말고. 금은에 눈이 어두워서 삶에서 소중한 것을 잇는 자는 마음이 작은 남자야. 죽어서 무덤에 모은 금은을 가져갈 수 있겠는가. 삶에서 소중한 것은 재화가 아니야”

“그럼, 무엇인가”

“자신의 영혼의 구원이야”

“영혼?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난 몰라”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모르다니, 더욱 마음이 작은 남자로군”

“언젠가, 너와 승부를 하겠어. 마음이 이기는가, 부가 이기는가. 눈에 보이는 것이 이기는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이기는가”<sup>8)</sup>

두 인물 중 도조는 지상 최고의 권력 속에 자신의 눈에 보이는 확실한 모든 것, 지상의 왕국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독살되고 만다.

한편 기베는 천신만고 끝에 로마에서 간절히 원하던 신부서품을 받고 일본으로 잠입한 후, 체포되어 처참한 고문 끝에 처형된다. 순교의 길을 택한 그는 천상의 나라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다.

대조되는 두 등장인물의 묘사 속에 한 가지 공통점은 자신의 확고한 신념에 따라 곳곳하게 모든 역경을 뛰어넘어 누구도 가지 않은 새로운 세계로 나아갔다는 점이라 할 수 있으며, 그 가치관의 옳고 그름을 떠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많은 점을 시사해 준다고 하겠다.

무엇보다 본 작품의 의의라 할 수 있는 점은, 앤도의 역사소설의 등장인물들 속에 본 작품의 주인공 도조와 기베의 가치관이 늘 상호교차하며 내용의 주된 테마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그러나 본 작품을 진정한 역사소설이라 말할 수 있을지 아닐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왜냐하면 역사를 배경으로 하여 큰 즐거이가 쓰여지긴 하였으나 빈약한 역사적 자료로 인하여 그 자료들이 채울 수 없는 부분을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너무도 많은 부분이 메워졌기 때문이다.

8) 작품 『왕국으로의 길-아마다 나가마사』의 텍스트로는 新潮社 1998년 6월 25일 간행을 사용함. pp.25-26

따라서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역사적으로 실제했던 인물이긴 하나 그들에 대한 묘사는 소설로서의 허구성이 크다고 하겠다.

관련 작품으로서는 희곡 『메남강의 일본인』(メナム河の日本人)을 들 수 있으며, 이 희곡은 『신작 신초극장』의 한 작품으로 발표되어 후에 극단 「구름」에 의하여 상연되었다.<sup>9)</sup>

## 2.2 『여자의 일생-1부 기쿠의 경우』(女の一生-一部・キクの場合)<sup>10)</sup>

### 『여자의 일생-2부 사치코의 경우』(女の一生-二部・サチ子の場合)<sup>11)</sup>

위 두 작품은 단행본으로 간행되기 전, 마이니치신문 조간에 연재(1부: 1980.11.1~1981.7.1, 2부:1981.7.3~1982.2.7)되었던 작품이다.

『여자의 일생』 1부는 막부말 유신기의 「우라카미4번 붕괴(浦上四番崩れ)」라 칭해지는 기독교 박해사건을 배경으로 주인공 기쿠와 세이키치(清吉)와의 순애보를 그리고 있다. 기쿠는 어렸을 적 추억 속의 세이키치와 우연한 재회로 사랑이 싹트게 되는데, 그는 가쿠레기리시탄으로 츠와노(津和野)로 유배되어 온갖 고문을 받게 된다.<sup>12)</sup> 기쿠는 그가 믿는 종교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으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신의 몸을 망치면서까지 세이키치를 돌보지만 그는 끝까지 신앙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다. 기쿠는 세이키치의 마음을 놓아주지 않는 기독교를 한없이 원망하지만, 마지막에는 병에 걸려 그토록 연모하는 세이키치가 세속의 모든 고통 속에서도 굳건히 간직하고 있는 신앙을 좇아 우라카미교회에서 산타마리아상의 따뜻한 손길을 받으며 죽어간다.

2부는 만주사변과 제2차세계대전 사이에 싹튼 기독교도의 사랑과 고뇌를 그리고 있다. 주인공 사치코는 『여자의 일생』 1부 기쿠의 사촌자매인 미츠의 손녀에 해당한다. 기쿠 할머니의 사랑이야기는 미츠 할머니로부터 아버지, 아버지로부터 사치코로 전해져 어느새 사치코 인생의 모델이 된다. 그녀 또한 태평양전쟁에서 가미가제특공대가 된 어릴 적 친구 슈헤이(修平)를 위해 헌신적인 사랑을 하게 된다. 이 소설에는 폴란드에서 나가사키로 포교를 위해 온 골베신부와 귀국후 아우즈비츠수용소에서 타인의 죽음을 대신한 삶도 작품 속의 큰 흐름으로 등장한다.

9) 엔도 슈사쿠 『메남강의 일본인』 講談社 1973.9.25

본 작품은 『왕국으로의 길』에 등장했던 야마다 나가마사와 베드로 기베뿐만이 아닌 주요 등장 인물들이 거의 등장하고 있으나, 야마다와 베드로에 대한 두 인물 대비는 『왕국으로의 길』이 훨씬 더 선명하게 부각되어 있음.

10) 초판 毎日新聞社 1982.1.30

11) 초판 毎日新聞社 1982.3.30

12) 가쿠레기리시탄(隠れキリシタン)이란 에도막부의 기독교 박해 때, 불교도를 가장하여 몰래 신앙생활을 해 온 기독교 신자를 칭함.

공통점으로는 두 작품모두 나가사키를 주된 무대로 하고 있다는 점, 선과 악, 현세에서의 강자와 약자, 지옥과 천국으로 묘사되는 땅, 신앙과 신의 부재 등 대립되는 두 개념들이 상호교차하여 묘사되어 있다는 점, 순백의 사랑을 통하여 성구 ‘친구를 위하여 죽는 자,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는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본 역사소설에는 작가 엔도의 순수문학에서의 종교관과 인생관이 농도깊게 뿌리내리고 있으며, 엔도는 ‘『여자의 일생』은 내 마음의 고향인 나가사키에 대한 보답의 심정으로 쓴 작품’이라고 밝히고 있다.<sup>13)</sup>

### 2.3 『숙적』(宿敵)<sup>14)</sup>

『숙적』은, 단행본으로 간행되기 전 1983년부터 1985년에 걸쳐 「월간 가도카와(月刊ガドカワ)」에 연재되었던 역사소설이다.

본 작품은 인간대립의 상극을 보여주는 두 주인공인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와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는, 비정한 책략가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신하로서 유키나가는 ‘몰의 인간’으로, 기요마사는 ‘흙의 인간’으로 상징되어 표현되어 있다. 이 대립적인 표현은 두 사람의 출생부터 삶의 방식까지를 단적으로 나타냈다고 할 수 있다.

주인공 고니시 유키나가는, 히데요시 정권하에서 막강한 권력을 지닌 사카이(堺)의 상인 고니시 류사(小西隆佐)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그의 아버지와 집안은 무역으로 널리 해외로까지 이름을 날렸다. 봉건제도하에서도 자유 무역항과 같은 활기를 띤 사카이고장과 기독교상인으로서의 부드러운 집안분위기가 그의 사고과 처신을 자유롭게 했다. 이에 반해 가토 기요마사는 오와리(尾張)의 나카무라(中村, 現名古屋市中村公園)에서 태어나 물과는 연관이 없는 산과 밭으로 이루어진 흙의 인간으로, 그의 할아버지는 사이토 도산(齋藤道三)을, 삼촌은 히데요시를 받든 무사였으나 아버지는 대장장이로서 뿌리깊은 무사집안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기요마사의 일생을 통한 무인다운 행적과 충절은 감탄을 자아나게 한다.<sup>15)</sup>

13) 작품 『여자의 일생』(1부-기쿠의 경우)의 텍스트로는 新潮社 1986년 3월 25일 간행을 사용함. 필담잡화 p.516.

‘나가사키는 내 마음의 성장에서 잊을 수 없는 도시가 되었다. 맛있는 양분을 제공해 주는 모태가 되어버렸다. 한 사람의 소설가로서 이러한 도시를 만난 것은 생애의 축복이다.’

14) 초판 角川書店(상·하) 1985.12.20

15) 작품 『숙적』(하)의 텍스트로는 角川書店 1995년 2월 28일 간행을 사용함. p.274.

다음 두 가지 일화는 기요마사의 강직한 무사정신을 엿볼 수 있다.

한 가지는, 기요마사에게 집안이 몰살당한 사람이 기요마사를 암살하려다 실패하고 붙잡혔다. 기요마사는 ‘장하다. 이제부터는 기요마사의 부하가 되라’고 하자, 암살자는 당신을 죽이는 것이 필

고니시의 부유한 집안과는 달리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역경을 헤쳐나갈 수밖에 없었던 기요마사는 출발점부터 달랐으며, 이 두 사람을 히데요시는 서로 평생의 숙적이 될 것임을 알면서도 끊임없이 라이벌관계로 만들어 자신에게 충성하도록 조정한다.

본 작품의 배경에는 히데요시의 정권탈취와 독살사건, 임진왜란, 기리시탄박해, 세키가하라(関ヶ原)전투 등, 일본 전국시대의 모든 문제가 총 망라되어 있다.

본 작품의 중요한 테마로서 기독교도인 고니시 유키나가의 면종복배의 삶을 들 수 있으며, 비굴하고 교활하게 보이는 면종복배의 삶을 상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그의 최선의 선택이라는 긍정적인 면으로 부각시킨 점이 특징이라 볼 수 있다.

“서방님의 남자다움은, 우콘님의 남자다움과 형태가 다릅니다. 서방님의 남자다움은 겉으로는 본심을 보이지 않고, 몸을 낮추면서 결코 마음은 머리를 낮추지 않는 점입니다”

“그것이 오늘까지의, 나의, 면종복배라는 삶의 방식이었다오”

“면종복배 또한 훌륭한 삶의 방식이라고, 이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면 서방님께 시집오지 않았을 것입니다”<sup>16)</sup>

엔도는 본 작품의 집필 동기로서, 어머니쪽 선조가 전국시대에 현재의 오카야마현 비세이초(岡山県美星町) 근처에 살던 다케이당(竹井党)이라는 토호였고, 자신의 선조 한 사람이 기요마사와 일대일 승부에서 목이 잘렸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sup>17)</sup>

## 2.4 『반역』(反逆)<sup>18)</sup>

『반역』은 단행본으로 간행되기 전 1988년1월부터 다음해인 1989년2월에 걸쳐 요미우리신문에 연재된 역사소설이다.

본 작품은 강자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를 중심으로 그에게 반기를 드는

---

생의 숙원이므로 또다시 역심을 품을지 모르니 빨리 죽여 달라고 했다. 그러자 기요마사는 눈을 치뜨며 ‘너를 대인이라 생각했는데 비겁하기 짝이 없는 겁쟁이구나. 조금 전 목숨을 버렸다면 옛 생각 또한 남아 있지 않을 터, 완전히 버리지 못하는 자를 겁쟁이라는 것이다.’라고 호통을 쳤다. 암살자는 눈물을 흘리며 그 자리에서 부하가 되었고, 기요마사는 즉시 자신의 칼을 지니게 했다고 한다. 다른 한 가지는 조선에서 히데요시에게 공문을 보낼 때 기요마사의 사인 획수가 많은 것을 두고 후쿠시마 마사노리(福島正則)는 냉소하며 ‘병이 무거워져 유언장을 쓸 때 형편이 안 좋겠네’라고 하자, 기요마사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전장에 시체를 방치해 돌지언정 이 부자리 위에서 죽으려고 생각하지 않는다. 유언장이 어떻다는 건가’라고 답했다고 함.

16) 전게서 『숙적』(하) p.70

17) 전게서 『숙적』(하) p.252

18) 초판 「講談社」(상·하), 1989.7.17

무장들의 갈등과 고뇌, 질투, 시기, 반목, 의심, 공포, 절망과 희망 등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천태만상의 마음의 소용돌이를 강자가 아닌 약자의 입장에서 묘사해 내고 있다.

주요 등장인물은 냉혹한 강자인 노부나가 이외에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최선을 다해 몸부림치는 약한 존재로서 도요토미 히데요시, 아라키 무라시게(荒木村重), 아케치 미즈히데(明智光秀), 시바다 가즈이에(柴田勝家) 등이 등장하며, 반역과 반역으로 점철된 그들의 삶의 논리와 심리가 내용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다.

본 작품에는 이들과 대비되는 인물로서 아비규환의 전란 속에 무사로서의 명예와 부귀를 모두 버리고 기독교 신앙에 귀의하는 다카야마 우콘(高山右近)이 등장하며, 이와는 반대로 본디 수도사였던 소년이 가족과 집안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무사의 길을 택해 살육을 할 수밖에 없는 굴곡된 운명도 등장한다.

또한 대세와 필요에 따라 신앙과 주군까지도 버리고 강자의 꼭두각시가 되는 무사들의 모습에서는 반역이라는 행동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일본인의 ‘열심히(一所懸命)’라는 단어의 의미와, 장부와 남자로서 의리있게 책임을 진다는 것은 어디까지를 의미하며, 정략결혼으로 출가한 집안과 친정사이에서 수동적인 입장인 여자들이 취하여야 할 정도(正道)에 대하여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게 된다.<sup>19)</sup>

우리 인간의 역사는 끝없는 권력투쟁 속의 전쟁의 역사인 만큼 본 작품의 제목인 ‘반역’의 의미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반추하게 된다. 왜냐하면 역사는 강자의 몫으로 그 반역에 의해 얻은 권력의 주체가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 때문이다.

필자가 일본인들의 무사정신을 접할 때마다 느껴지는 괴리감으로서 승자와 패자라는 냉혹한 상황 속에 그들이 최후를 맞이하는 장면을 들 수 있다.<sup>20)</sup> 흔히들 죽음의 미학이라 말하나, 애절하고 아름다운 선율이 들리는 듯한 한 폭의 그림 앞에 서있는 심정이라고나 할까. 그렇게 비정한 반역이 난무하는 세상에 반역의 주체와 객체의 의미가 없어지고 갑자기 모든 것이 정지한 고요 속에 펼쳐지는 깨끗한 생의 마감은 참으로 깊은 감명을 느끼게 한다.

19)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전란의 시대에는 선조들의 땅을 지키기 위하여 우열을 가름할 수 없는 무장들의 싸움에서는 어쩔 수 없이 아버지와 아들, 형제들끼리도 담론에 담론을 거쳐 각기 편이 다른 적장의 부하로 들어가 서로 총부리를 겨누었음. 이는 한 편이 패하여 죽음을 당하더라도 다른 한편은 살아남아 ‘열심히(一所懸命)’ 선조들의 땅을 지키기 위함이었다고 함.

20) 작품 『반역』(하)의 텍스트로는 講談社 1996년 6월 14일 간행을 사용함, pp.328-330.

다음 문장은 시바다 가즈이에가 최후를 맞이하는 장면이다.

그에게는 그 다음 무사로서의 미학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일족과 마지막까지 싸워준 가신들을 모아놓고 결별을 위한 마지막 주연을 열었다. 히데요시 측도 총도 활도 쏘지 않고 어둠 속에서 조용히 그 소리를 듣고 있었다. 가즈이에에는 ‘춤 한 번 쳐볼까’라고 부인에게 말했다.(요약, 필자)



본 작품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역사적인 자료로서 『무공야화』(武功夜話)<sup>21)</sup>가 처음으로 인용되었다는 점과 작품 속의 등장인물인 다케이 도조(竹井藤藏)가 작가 엔도의 먼 선조로 등장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 2.5 『결전의 때』(決戦の時)<sup>22)</sup>

작품 『결전의 때』는 젊은 날의 오다 노부나가를 중심으로 비정하리 만큼 잔인했던 성격의 형성과정<sup>23)</sup>과 행상인 기시다 도키치로(木下藤吉郎)에서 노부나가의 하급무사로, 이후 장군에서 다이코 히데요시(太閤秀吉)로까지 화려하게 변신해 가는 히데요시의 출세과정, 노부나가의 여동생 오이치(お市)의 비운의 삶 등이 상세히 묘사되어 있다.

특히 가련한 삶의 주인공 오이치는 주위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절세미인으로 평판이 자자했고 노부나가의 정략결혼 권유로 아사이 나가마사(淺井長政)에게 시집을 가나 나가마사는 전국의 패권을 쥐고자하는 노부나가와와의 싸움에서 패하여 죽음을 당하게 된다.

이 사건보다 더 극악하고 비정한 노부나가의 행동은, 동생 노부유키(信行)의 독살사건과 죽은 나가마사와 그의 아버지 히사마사(久政)의 수급에 옷칠을 하여 전승축하연회의 술안주감으로 삼은 일, 치욕과 고통의 나날 속에서도 오이치의 연명의 의미였던 어린 외아들, 노부나가에게는 조카에 해당하는 만푸쿠마루(万福丸)까지도 참수 했다는 사실이다.

히데요시도 권좌를 유지하기 위해 자식이 없던 시절 양자로 삼아 후계자로 정한 히데쓰기(秀次)와 신분 미천할 때부터 최고의 권력을 잡을 때까지 수없이 함께 죽음의 고비를 넘긴 마에노 쇼우에몬(前野将右衛門)과 그의 아들까지도 죽음에 이르게 한다.

작품 『반역』과 다른 점은, 노부나가의 묘사에서 노부나가를 부하 무장들의 측면에서가 아닌 주인공으로 정면에 내세운 점과 노부나가가 권좌에 앉기까지의 심성 어린 젊은 날에 초점을 맞추어, 강자 속의 약자의 모습으로 부각시켰

21) 『무공야화』 전 4권 보완 1권, 新人物往来社刊行, 1987.

본 역사서는 오와리국 니와군 마에노촌(尾張国丹羽郡前野村, 現在 愛知県江南市前野)의 토호인 마에노 집안(현재는 요시다(吉田)로 개명)에 전해져 오던 고문서. 1955년 이세만(伊勢湾)태풍으로 인하여 광이 무너져 발견됨. 이후 현 집주인(吉田竜雲)과 동생(蒼生雄)에 의하여 정리·해설되어 1987년에 간행됨. 이 책에는 노부나가, 히데요시, 이에야스 3대에 걸친 마에노 집안의 역사가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음. 『반역』(상) p.21, (하) p.362, 『남자의 일생』(男の一生)(하) p.364

22) 초판 講談社(상·하), 1991.5.20

23) 오다 노부나가의 아버지 노부히데(信秀)는 후계자를 정하지 않은 채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고, 자신들은 물론 어머니에게서조차 신망도 사랑도 받지 못한 노부나가는 결국 동생 노부유키(信行)를 유언하여 독살시킴.

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노부나가의 성장과정에서 보면 시기상으로는 『반역』에 앞 선 작품이다.

무엇보다 본 작품의 특색은 기존 작품들의 주된 테마였던 등장인물들과 기독교와의 관계를 거의 언급하지 않은 점을 들 수 있는데, 엔도 문학세계에서 거시적으로 살펴본다면 신이 없는 삶에서의 악의 하극상과 무상함을 역설적으로 나타냈다고 해석할 수 있다.

## 2.6 『남자의 일생』(男の一生)<sup>24)</sup>

작품 『남자의 일생』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마에노 쇼우에몬(前野将右衛門)은, 히데요시가 노부나가의 잔신부름을 할 때인 기시다 도키치로 때부터 천하통일을 이루기까지 난제의 난제를 함께 헤쳐 나간 둘도 없는 충신이다. 인간의 절대 신뢰관계라고 한다면 쇼우에몬과 히데요시, 쇼우에몬과 하치쓰카 고로쿠(蜂須賀小六)<sup>25)</sup>의 관계라고 말할 정도로 하극상의 전란의 시대에 서로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으로 죽음의 고비를 넘기는 모습은 인간의 아름답고 숭고한 결정체를 보는 듯하다.

본 작품의 특색으로서는 최대권력자가 아닌 히데요시를 헌신적으로 보좌했던 무장들의 활약상이 중심 내용이라는 점과 엔도의 역사소설 중 다른 어떤 작품보다도 히데요시의 출세과정을 상세히 서술했다는 점, 『결선의 때』와 달리 같은 시대의 동일 사건을 다루면서도 노부나가가 중심인물이 아닌,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두 가신 쇼우에몬과 하치쓰카의 시각에서 본 주군 히데요시를 중심으로 전란의 하극상을 묘사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젊었을 때의 히데요시는 신분에 관계없이 부하들과 주위 사람들에게 매우 다정다감했던 인물로 전해진다. 전승에 대한 포상에서도 언제나 자신의 이익보다는 상대를 더 배려했던 그가 천하를 손에 쥐고 나서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된 듯 변해 버렸다. 아주 미미한 불온의 움직임만 포착되어도 옛 동지는 물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노부나가 이상으로 냉혹하고 인륜을 저버리는 처사를 마다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사로서 가신으로서 신의를 저버리지 않고 생을 마감한 쇼우에몬의 일생은 우리 인간이 동경하는 멋진 ‘남자의 일생’을 구가했다고 생각된다. 물론 작가 엔도가 참고한 역사자료 『무공야화』가 쇼우에몬의 후손들에 의해 쓰여진 점을 감안하면 다소의 과장이 있다하더라도 말이다.

본 작품에는 전란 속의 무장들의 이야기 속에 순백의 사랑들이 그 행간 행

24) 초판 日本經濟新聞(상·하), 1991.10.15

25) 하치쓰카 고로쿠(蜂須賀小六)는 평생을 쇼우에몬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한 인물로 쇼우에몬 고향 이웃마을인 야스이(安井)집안 사람임.

간에 녹아 있어 작품의 묘미를 더해 준다. 무엇보다 주인공 쇼우에몬의 기쓰노(吉乃)<sup>26)</sup>에 대한 순백의 사랑과 그런 남편을 지켜보며 가슴앓이를 하면서도 내색 않는 쇼우에몬의 처 아유의 헌신적인 사랑, 잔인하기 이를데없는 노부나가가 기쓰노에 대해서만은 무한한 사랑을 보인점이 잔잔하게 잘 묘사되어 있다.

주인공 쇼우에몬과 기리시탄 관계는 본 작품에서 비중이 그리 크지는 않으나 하나의 작은 테마를 이루고 있다. 그의 장남과 며느리는 기리시탄이고 쇼우에몬도 나중에는 기리시탄이 되나 교회의 이해나 활동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 지상의 낙원이 아닌 천상의 낙원에 대한 이해는 못한 듯하다.

본 작품의 배경으로서의 특색이라 한다면, 쇼우에몬의 고향에 흐르는 기소(木曾)강이 영원한 생명의 강으로 상징되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는 사실이다. 쇼우에몬은 고향의 기소강에서 먼저 세상을 떠난 어린 딸과 처와의 만남을 꿈꾸고, 험난한 전란의 시대에 모든 오욕과 고통까지도 포용해 주는 기소강에 대한 이미지는 쇼우에몬에 있어 영원한 안식처이며 천국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하겠다. 다만 기소강에 대한 애착과 안식은 엔도의 마지막 장편소설 『깊은 강(深い河)』을 연상시켜 본 작품이 큰 영향을 주지 않았나 생각된다.

무엇보다 『남자의 일생』이, 역사의 뒤안길에 사라진 쇼우에몬이라는 인물에 대한 일대기라는 점에서 작가 엔도가 일생을 통해 추구해온 ‘역사와 신앙속의 약자에 대한 복원’이라는 큰 테마와 일맥상통하고 있다.

## 2.7 『왕의 만가』(王の挽歌)<sup>27)</sup>

작품 『왕의 만가』는 전란의 시대에 지상의 기독교 왕국을 꿈꾸며 규슈지방을 중심으로 활약한 무사 오토모 소린(大友宗麟)의 굴곡 많은 일생에 대한 이야기이다.

소린은 명문의 무사 집안에 태어났으나 어릴 적부터 심신이 병약하고 천성도 무예보다는 노래와 시가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던 여린 마음의 소유자였다. 어릴 때 여원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은 그의 만년까지 이어지고, 아버지 요시아키(義鑑)의 무관심과 후계자에 대한 의구심, 그를 가장 아껴 주리라 믿었던 교육관 뉴타 치카자네(入田親誠)의 칭찬벼락같은 모반, 전란에 대한 무상감 등으로 인해 기독교 신앙에서 마음의 평안을 찾게 된다.

소린의 무사로서의 삶에 큰 전환의 계기가 된 것은 예수회의 프란시스코 자

26) 기쓰노(吉乃)는, 오다노부나가의 실질적인 정실과 같은 측실이였다. 그녀는 도타 야헤이지(土田弥平次)에게 시집갔으나 남편이 전사하여 친정인 이코마(生駒)로 돌아와 있을 때 노부나가를 만났다. 노부나가의 측실이 되고나서는 규안님(久庵さま)이라 불리었음.

27) 초판 新潮社(상·하), 1992.5.15

비엘과의 만남에 의해서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 라고 말하며 소린은 전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큰 손길  
이 그와 자비엘을 만나게 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우연이라고 부르  
는 것--실은 그것은 우리들을 초월한 어떤 손길이다. 그렇지 않으면, 자비엘  
은 소린의 인생에 이토록 깊은 흔적을 남길 리가 없었다. 28)

소린에게는 한 사람의 선교사 이외에 그 누구에게도 밝힐 수 없는 비밀이  
있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무사들이 생각하는 처세술이나 무공에 관한 것이  
아닌, 무상함이 판치는 현세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안을 얻는 길에 대한 갈등과  
고뇌였다. 소린에게 있어서 진정한 싸움은 이러한 평안을 얻기 위한 정신세계  
속의 싸움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왕의 만가』는, 엔도의 『총과 십자가』에서 신앙적인 강자 기  
베의 약한 내면세계를 그려낸 것처럼 권력을 지닌 강자 소린의 정신세계 속의  
약한 심상을 그려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본 작품만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소린의 무사로서의 전쟁에 대한 갈등보다는  
참다운 정신적 평안을 얻기 위한 마음의 싸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  
작가가 지금까지 부각시켰던 등장인물들의 ‘신이 부재로 인한 죄인식의 부재  
및 악의 문제’보다는 소린의 ‘죄에 대한 끊임없는 인식’을 강조했다는 점<sup>29)</sup>, 작  
가 엔도의 기존 테마인 ‘일본풍토에서의 기독교’에 대한 인식의 문제가 다른  
역사소설에서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섬세하게 총 망라되어 있다는 점 등이  
다. 이러한 테마들은 엔도의 순수문학에서도 많이 다루어졌기 때문에 본 장에  
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겠다.<sup>30)</sup>

28) 작품 『왕의 만가』(하)의 텍스트로는 新潮社 1997년 4월 10일 간행을 사용함. p.226

29) 작품 『왕의 만가』(상)의 텍스트로는 新潮社 1999년 3월 5일 간행을 사용함. pp.69-70

아버지의 죽음이 소린에게 오토모가문의 후계자 지위를 얻게 했다. 가슴을 가득 채운 해방의 기  
쁨과 만족감 사이에는 아버지의 죽음을 기뻐하는 것이 숨어 있었다. 그것을 알아챘을 때, 소린은  
무어라 형용할 수 없는 혐오감을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느꼈다. 이제 살아간다는 것은, 그 자체로  
죄업(罪業)의 냄새를 품고 있다. (발췌필자)

30) 거론된 테마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필자의 논문 『침묵』(「일본학보」 제31집), 『무사』  
(「일본문화학보」 제7집), 『깊은 강』(「일본문화학보」 제9집)을 참조요망.

본 작품에서 기독교 신앙문제가 언급된 곳은 수없이 많다. 상권의 내용으로서는, 늑과 같은 일본  
적 토양(p.112), 신의 존재(p.113), 죄에 대한 정의(p.118), 신의 왕국과 영혼의 문제(p.119), 소린의  
신심에 대한 의구심(p.135), 물리적 싸움과 정신적 싸움(p.139), 자신의 삶과 신부의 삶(p.217), 불  
교의 가르침과 기독교(p.230) 등, 하권은 장의 제목부터 기독교신앙과 관련된 곳이 많다. 「신의  
나라」(p.70), 「주여, 나는 지쳤습니다」(p.92), 「바리나노신부의 야망」(p.113), 「텐소소년사절」  
(p.135) 등.

## 2.8 『여자』(女)<sup>31)</sup>

작품 『여자』는 단행본 간행전인 1994년1월1일부터 1994년10월30일까지 아사히신문에 연재되었다.

본 작품의 시대적 배경은 일본의 1560년경부터 1853년 도쿠가와 12대 장군인 도쿠가와 이에요시(徳川家慶)까지 거의 300년에 걸쳐 있으며, 역사적 사건 속에 사라져 간 기구한 여인들의 삶과 죽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전반부는 전국시대 귀족 집안의 인물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오이치와 요도(淀)를 부각시켜, 이들이 혼미한 전란 속 정략결혼의 수단이 되어 어떻게 처신하고 어떤 인생행로를 걸었는지를 묘사하고 있다.<sup>32)</sup> 후반부는 에도 막부의 가스가노쓰보네(春日局)가 만든 오오쿠(大奥)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여자들의 권력에 대한 욕망과 암투, 그에 따른 비극적이 삶이 그려져 있다.<sup>33)</sup>

전후반의 공통점은 오오쿠에서의 여인들의 비극적인 삶이 주된 테마라는 점과 전란의 시대에 여자들의 적은 남자였으나 오오쿠에서의 적은 여자라는 점이다. 다른 점으로서는 전반부의 주인공들이 모두 귀족출신인데 반하여 후반부의 주인공들은 귀족이 아닌 하급출신에서 비상하여 최고의 권력을 거머쥔 여인들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sup>34)</sup>

전반부에는 오이치와 요도 이외에도 노부나가의 측실이었으나 실제적으로 정실에 가까웠던 기츠노도 등장한다. 그러나 기츠노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한 작품 『결전의 때』와 『남자의 일생』에 더 상세히 언급되어 있으며 본 작품에는 오이치와 요도가 다른 작품에서보다 상당히 큰 비중을 갖고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오이치는 노부나가의 여동생으로 아사이 나가마사와 정략결혼하나 다정다감했던 남편과의 9년간의 결혼생활은 노부나가와 함께 있던 시절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행복했다. 남편이 노부나가와 도요토미에 의해 죽음을 당하고, 노부나가의 사후에는 히데요시에게 의탁하고 있었으나 그를 대적하여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유일한 장수 시바다 가즈이에와 재혼한다. 재혼한 남편 또한 히데요시

31) 초판 講談社 1995.5.20

32) 요도(淀)는 오이치의 장녀로 어렸을 때 이름은 차차(茶々). 요도는 히데요시의 측실이 된 이후의 이름임.

33) 가스가노쓰보네(春日局, 1579년~1643년)는, 에도막부 3대 장군인 도쿠가와 이에미즈의 유모로서 권력의 중심에 있었음. 본명은 사이토 후쿠(斎藤福)이며 가스가노쓰보네는 조정으로부터 받은 칭호임. 그녀가 만든 오오쿠(大奥)는 이에미즈의 정실과 측실, 이를 보좌하는 시녀들이 거처하던 곳으로, 크기는 조정의 3분의 1, 숫자로는 1000명을 웃돌 때도 있을 정도로 많았다고 함.

34) 오라쿠(お楽)는 이에미즈의 측실로 도쿠가와 4대장군 이에쓰나(家綱)의 생모이며 그녀의 양부는 현웃장수, 실부는 죄인. 오타마(お玉)는 이에쓰나의 측실로 5대장군 쓰나요시(綱吉)의 생모이며 집안은 채소장수 등.

에게 패하여 오이치는 가즈이에와 죽음을 함께 한다.

한편 작품 『여자』에서 가장 중요인물로 부각되어 있는 요도는 어머니 오이치의 유언인 ‘히데요시에 대한 복수’를 평생 가슴에 새기고 있었으나 복수에 대한 자기 합리화로 히데요시의 측실이 된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요도의 운명을 생각하면, 원수의 자식을 낳고도 아버지 나가마사와 어머니 오이치의 핏줄을 이은 후계자로 자처하려는 몸부림에서 논리를 초월하여 처연함과 애절함을 느끼게 한다.<sup>35)</sup> 두 모녀가 가장 행복했던 시절을 보낸 아름다운 기요미즈(清水)계곡은 영혼의 안식처로서 마지막까지 상징적으로 반복 묘사되어 있다.

한편 후반부의 등장인물인 오라쿠(お楽), 오타마(お玉), 오기요(お喜世), 덴에이인(天英院), 에지마(絵島), 마쓰시마(松島), 오치호(お知保), 긴(ぎん), 가요(加代), 오사치(お幸), 세야마(瀬山), 시고지(姉小路), 오미츠(お光) 등은 오오쿠에서 살던 여인들로서 태평시대를 구가했다는 도쿠가와시대에 권좌를 둘러싼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치루고 있다. 엔도는 평범한 하급무사나 상인의 딸들이 오오쿠라는 독살이 판치는 권력의 세계에서 어떻게 소름끼치는 악의 화신으로 변해가는가를 적나라하게 그려내고 있다.

그러나 이 수많은 여인들 중에 권력을 탐하지 않는 유일한 인물로서 오미즈가 있다. 그녀는 오오쿠에서의 부귀영화를 마다하고 야채가게의 안주인으로서 평범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간다. 오미즈는 독자들에게 행복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많은 것을 시사하는, 작가 엔도의 뜻이 함축되어 묘사된 인물이라 하겠다.

이 작품의 특징으로서 새로운 전국시대의 자료인 「무공야화」의 등장으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오이치와 그의 딸 차차(茶々)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젊은 날의 노부나가의 새로운 면이 돋보인다는 점, 무엇보다 다른 작품에서 볼 수 없는 테마인 ‘궁중의 가장 은밀한 오오쿠에서 벌어졌던 여인들의 권력에 대한 암투’라는 점, 표현적인 면에서도 긴박함과 처절함이 한층 더 부각되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 3. 엔도문학에서의 역사소설의 특징

본 장에서는 2장에서 살펴본 엔도의 역사소설에 대한 각 작품의 특징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정리해 보고자 한다.

35) 차차 즉 요도가 낳은 도요토미 히데요리(豊臣秀頼)에 관하여 『남자의 일생』에서는 오노 하루나가(大野治長)와 밀통하여 낳은 자식이라는 암시를 주고 있으나 『여자』에서는 그런 언급이 전혀 없음.

다음은 엔도의 역사소설과 순수소설의 공통점들이다.

첫째, ‘일본에서의 기독교’와 ‘일본인에 있어서의 신의 존재’라는 큰 흐름의 테마가 동일하다.

둘째, 각 작품들에는 모성적인(母なるもの) 여성들이 등장한다.

셋째, 인간의 아픔을 끝까지 함께 하는 동반자 예수의 모습을 지닌 충신들이 부각되어 있다.

넷째, 다른 역사소설들이 주로 역사의 주인공들을 중심으로 그의 공적을 다루고 있으나 작가 엔도는 약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역사의 흐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섯째, 권력자 즉 강자 안에 내재되어 있는 약한 면을 주된 테마로 삼았다.

여섯째, 인간의 권력을 신의 권력으로 착각하는 절대권력 안에서의 악의 문제를 조명해 내고 있다.

일곱째, 작가 엔도의 시선은 변함없이 약자와 약한 면에 대한 동조와 따뜻함을 지니고 있다.

여덟째, 약자와 강자에 대한 의미를 반추하게 하여, 진정한 강자에 대한 세속적인 판단을 유보시킨다.

아홉째, 속세적인 구원의 세계와 천상의 구원의 세계에 대한 끊임없는 괴리와 갈등 속에서도 언제나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

열째, 화자(話者)를 통하여, 역사소설 속의 무대와 다를 바 없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당신이였다면 어떻게 받아들이고 행동했을까’라는 수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위와 같이 엔도의 역사소설은 순수소설과 많은 면에서 공통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열거한 내용들은 두 장르의 상이점이라 할 수 있는 점들이다.

첫째, 『침묵』을 비롯한 순수문학에서는 기독교의 유일신과 개인의 신앙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나, 역사소설에서는 개인보다는 교회와 조직이라는 인간의 집단과 개인의 문제에 더 비중을 크게 두었다.

둘째, 순수문학이 신의 문제를 직접적이고 표면적으로 다루었다면 역사소설은 신의 문제와는 개연성이 없는 듯, 전쟁과 권력의 소용돌이 속에서의 인간의 대립과 갈등 속에 은유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셋째, 순수소설은 모성적인 사랑의 신의 존재를, 역사소설은 모성적인 사랑을 베푸는 여인들과 충복들을 부각시켰다.

넷째, 순수문학은 신앙의 강자 속의 약한 심성을, 역사소설은 권력의 강자 속의 약한 심정을 다루었다.

다섯째, 단어의 의미로서 순수소설은 배교에 관한 것을, 역사소설은 반역의

진정한 의미를 반추하게 한다.

이와 같이 엔도의 역사소설은 순수소설과 부각시키는 소재의 차이는 있으나 엔도문학이라는 큰 테마에서 순수문학과 동일하며, 역사의 흐름 속에 주목을 받지 못했던 인물들을 복원하여 의미를 부여하고 최대의 권력자에게 숨어있는 인간의 약한 심성에 대한 작가의 따뜻한 시각도 같다고 할 수 있다.

#### 4. 엔도의 역사소설에 대한 제언

엔도의 역사소설을 대하노라면 역사소설과 시대소설에 대한 개념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 이 두 장르에 대한 개념정리부터 한자면, 역사소설은 역사상의 사건이나 인물·풍속 등을 역사적 사실(史實)에 근거하여 재구성한 소설이며, 시대소설은 지나간 어떤 시대를 배경으로 그 시대의 사건·사회상을 작가의 상상력에 기인하여 쓴 소설이라 정의할 수 있다.<sup>36)</sup>

이러한 개념 하에서 생각한다면 엔도의 역사소설은 그 중간에 해당하여 그 어느 쪽도 아닌 애매한 위치에 있다고 하겠다. 오히려 역사적 고증을 확실하게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시대소설에 가깝다고도 생각할 수 있어 문제점으로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필자 나름의 고찰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먼저, 엔도의 역사소설을 진정한 역사소설이라 정의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이다.

위에서 설명한 역사소설과 시대소설 개념정리에도 불구하고 굳이 엔도가 시대를 배경으로 쓴 소설을 역사소설이라 분류함은, 작가가 소설을 구성함에 있어 역사적 사실을 무시한 것이 아닌,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불충분한 사료를 토대로 작가적 기량을 최대한 살렸다는 점을 들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또한 그렇게 구성해 낸 소설이 작가의 역사관에 대한 표출과 함께 독자들로 하여금 공감과 동조를 자아내는 긍정적인 요소들을 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소설로서의 설득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엔도의 소설을 역사소설이라 분류함은, 2000여년의 기독교역사를 통하여 규정된 예수상과는 상이한 엔도의 ‘나의 예수’에 대하여 우리들이 많은 공감과 지지를 보내는 것에 비한다면 오히려 당연하다는 생각조차 든다.<sup>37)</sup>

36) 이희승 편저(1999) 「국어대사전」 민중서림 p.2256, p.2611

37) 필자의 논문 「『예수의 생애』와 『그리스도의 탄생』」(『일본문화연구』 제10집) 참조요망.



다음으로는, 엔도가 역사자료로 많이 활용한 『무공야화』<sup>38)</sup>의 자료로서의 위서(僞書)에 대한 논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작가가 굳이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한 이유는 무엇일까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엔도는 작가로서 작품을 쓸 때 직접 발로 뛰며 실증하는 작가로 유명하다. 더구나 역사소설을 쓸 때는 『무공야화』 이외에도 선교사 프로이스의 저서 『일본사』(日本史)를 비롯하여 『노부나가공적기록』(信長公記), 『노부나가 기록』(信長記), 『대일본사료』(大日本史料) 등 자료로서 가치가 높은 것과 이밖에도 『총견기』(總見記), 『노인잡화』(老人雜話), 『그림책태각기』(繪本太閤記), 『다문원일기』(多聞院日記), 『미카와이야기』(三河物語) 등 많은 자료들의 고증을 토대로 작품을 썼다.<sup>39)</sup>

그러나 『무공야화』에는 기존의 다른 사료에는 없는 마에노가문에 대한 이야기가 주된 내용으로 되어 있어, 강자가 아닌 약자 가신(家臣)의 입장에서 기술이라 점에서, 엔도가 순수소설이나 역사소설, 유머소설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약자를 중심으로 한 작품세계를 그려왔다는 점을 생각할 때 작가에게는 가장 좋은 사료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엔도의 이와 같은 작품경향을 종합해 볼 때, 교회역사의 뒀안길에 묻혀버린 약자에 대한 복권을 꾀했던 종교관과 마찬가지로, 그의 역사관도 기존의 ‘역사는 강자의 기록’이라는 논리에서 벗어나 약자의 삶의 역사도 당당히 역사의 한 페이지로서 후세에 전해져야 한다는 사상에 기초한 것이라 생각된다.

## 5. 마무리

지금까지 엔도의 역사소설에 대한 각 작품의 주요테마와 순수문학과와의 비교를 통하여 엔도문학에서의 역사소설에 대한 의의를 고찰해 보았다.

물론 엔도의 역사소설이 진정한 역사소설이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는 하나, 실증을 중시하는 작가가 기존의 수많은 자료와 검증을 최대한 살렸다는 점에서 이의를 달기는 힘들 듯하다.

엔도의 역사소설은 일본의 전란의 시대와 기리시탄 박해를 주된 테마로 삼고 있으며, 작가로서의 시선도 순수문학과 마찬가지로 ‘약자’에 대한 따뜻한 포용성을 유지하고 있다.

38) 전개서(주4) 加藤宗哉 『遠藤周作』 p.216

39) 작품 『결전의 때』(상)의 텍스트로는 講談社 1996년 11월 9일 간행을 사용함. p.18, p.19, p.46, p.171, p.155, p.184, p.218, p.240 (열거된 역사서들은 다른 작품에도 중복 명기되어 있기도 함)

엔도는 등장인물들의 어두운 심연 속의 본성을, 비난이나 고발이 아닌 자신 속의, 더 나아가 인간의 보편적 성향으로 수용하고 공감하며 함께 고뇌하고 있다. 실재 존재했던 역사적 인물들의 삶을 통하여 참다운 인간적 삶이란 어떤 것이며 진정한 행복과 안식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이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소설의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다만, 역사소설에서는 순수소설보다 신앙의 문제가 넓게 표출되어 있다는 점이 특색이라 할 수 있다. 순수소설은 기독교 유일신과 개인 신앙의 문제가 작품 전반에 표출되어 있는 반면, 역사소설에서는 교회와 조직이라는 인간의 집단과 개인의 문제가 은유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부각시키는 소재의 차이로는, 순수소설은 모성적인 사랑의 신에 대한 존재를, 역사소설은 모성적인 사랑을 베푸는 여인들과 충복들의 존재를, 순수문학은 신앙의 강자 속의 약한 심성을, 역사소설은 권력의 강자 속의 약한 심정을, 순수소설은 ‘배교’에 대한 것을, 역사소설은 ‘반역’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반추하게 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두 장르의 소설들이 부각시키는 테마의 차이는 있으나 엔도문학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역사소설도 순수문학과 마찬가지로, 인간은 강자·약자라는 이분법으로 나눌 수 없는 약한 존재로서 이들의 신의 부재로 인한 비극적인 삶과 무상감은 끊임없이 신의 은총과 손길을 갈구하게 된다는 ‘인간 공통의 보편적 성향’을 보여줬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엔도문학의 ‘일본에서의 기독교’와 ‘일본인에 있어서의 신의 존재’라는 큰 테마 속에 엔도의 역사소설도 함께 포함시킬 수 있겠다.<sup>40)</sup>

40) 순수문학에서의 엔도문학의 특징에 대해서는 필자논문 전개서 『총과 십자가』 제2장 참조 요망.

## 【参考文献】

- 이희승 편저(1999) 「국어대사전」 민중서림. p.2256, p.2611
- 遠藤周作(1986) 『女の一生』(一部) 新潮社 p.516
- 遠藤周作(1994) 『男の一生』(下) 文芸春秋 p.364
- 遠藤周作(1995) 『女』講談社. pp.533-535
- 遠藤周作(1995) 『宿敵』(下) 角川書店. p.70 p.274
- 遠藤周作(1996) 『反逆』(下) 講談社. p.328-330, p.362
- 遠藤周作(1996) 『決戦の時』(상) 講談社 . p.18, p.19, p.46, p.171, p.155, p.184, p.218, p.240
- 遠藤周作(1997) 『反逆』(上) 講談社. p.21
- 遠藤周作(1998) 『王国への道』 新潮社. pp.25-26
- 遠藤周作(1999) 『王の挽歌』(上) 新潮社. pp.69-70
- 필자논문(1999) 「『무사』론」 한국일본문화학회 「일본문화학보」 제7집 pp.319-333
- 필자논문(2000) 「엔도 슈사쿠의 『깊은 강』론」 한국일본문화학회 「일본문화학보」 제9집 pp.341-356
- 필자논문(2001) 「엔도 슈사쿠의 『충과 십자가』론」 한국일본학회 「일본학보」 제49집 pp.417-433
- 필자논문(2008) 「엔도 슈사쿠의 『오바카상』론」 한국일본문화학회 「일본문화학보」 제37집 pp.223-241
- 山形和美編(1997) 『遠藤周作—その文学世界』 星雲社 pp.233-256
- 笠井秋生・玉置邦雄(2000) 『作品論 遠藤周作』 双文出版社 pp.241-253
- 佐藤泰正(2004) 『遠藤周作を読む』 笠間書院 pp.85-100
- 加藤宗哉(2006) 『遠藤周作』 慶応義塾大学出版社 pp.211-240
- 末国善己(2006) 「遠藤周作の歴史認識をめぐって」 國文學解釋と鑑賞 pp.133-140
- <http://www.yahoo.co.jp/>
- <http://ja.wikipedia.org/>

## 要 旨

本論文では、既存の研究分野ではほとんど触れられることのなかった遠藤文学の歴史小説に対する分析を通して、各作品の主たるテーマと特質、遠藤文学における歴史小説についての意味などを考察した。

遠藤の歴史小説は日本の戦国時代とキリシタン迫害を主たるテーマとしており、作家としての視線も純粹文学同様、‘弱者’に対する暖かい包容性を保っている。

遠藤の歴史小説に対する意義としては、実在した歴史上の人物たちの生き方を通して、真の人間としての生き方とはどんなものであり、真の幸福と安息はどこにあるのかについて、絶えることのない省察が展開されている点を上げることができる。

ただし、純粹小説より信仰の問題が弱めに表出されているという点が特色で、純粹小説ではキリスト教の唯一神と個人信仰の問題が作品の全面に持ち出されているのに対し、歴史小説では教会と組織という人間の集団と個人の問題が隠喩的に描出されている。

浮かび上がってきた小テーマの違いとしては、純粹小説は母性的な愛の神についての存在を、歴史小説は母性的な愛を施す女性や忠臣らの存在を、純粹文学は信仰の強者の中の弱い性格を、歴史小説は権力の強者の中の弱い心情を、純粹小説は‘背教’についての、歴史小説は‘反逆’についての真の意味を反芻させるようにしている点である。

しかし遠藤文学という大きな枠組みで見ると、歴史小説も純粹文学と同様、人間は強者と弱者という二分法で分けることはできない弱い存在とし、彼らの神の不在による悲劇的な人生と無常感はずっと神の恩寵と助けを渴望することになるという‘人間共通の普遍的指向’を見せていると言えよう。

すなわち、遠藤文学の‘日本におけるキリスト教’と‘日本人にとっての神の存在’という大きいテーマの中に、遠藤の歴史小説も共に包含させることができると言える。

キーワード： 遠藤文学、歴史小説、純粹文学、大衆文学、キリスト教、戦国時代

투 고 : 2011. 11. 30  
1차 심사 : 2011. 12. 17  
2차 심사 : 2012. 1. 7